

농어촌공사, 수초 '마름' 활용 친환경 화장품 개발

[장아름]



농어촌공사가 개발한 친환경 화장품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내벤처팀 '워터팜'이 저수지 수생식물 마름을 원료로 한 친환경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마름은 농업용 저수지에 자생하는 대표적 한해살이 수초로, 생장기에는 영양염을 흡수해 조류 확산을 억제하는 등 수질 관리에 기여하지만 가을철 고사 시 분해 과정에서 용존산소가 소모되고 영양염이 재유입돼 농어촌공사가 제거 작업을 벌인다.

워터팜은 마름 열매에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확인하고 화장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재활용)함으로써 저수지 환경 개선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함께 추구했다.

워터팜은 마름 열매 추출물과 니아신아마이드 등 식물성 원료를 적용하고 파라벤 등 유해성분을 배제한 첫 제품 누로아 앰플을 개발해 공사 기념품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향후 뷰티 브랜드 '누로아(NUROA)'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areum@yna.co.kr

(끝)

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생식물 '마름'을 뷰티 원료로 업사이클링

[박원식]

사내벤처 '워터팜' 친환경 브랜드 '누로아(NUROA) 개발
첫 제품 '누로아 앰플' 공개...마름 속 폴리페놀에 주목
수생식물 자원에 경제적 가치 부여해 저수지 환경개선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사내벤처팀 '워터팜'은 저수지 수생식물 '마름'을 활용한 친환경 브랜드 '누로아(NUROA)'를 선보였다.(사진=농어촌공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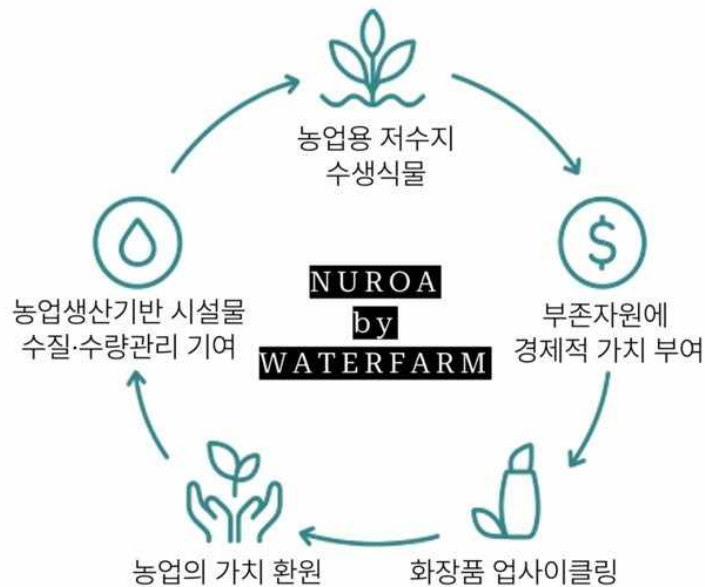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내벤처팀 '워터팜'이 저수지 수생식물 '마름'을 화장품 원료로 업사이클링한 친환경 뷰티 브랜드 '누로아(NUROA)'를 공개하고 '누로아 앰플'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마름 열매 물밤.

마름은 농업용 저수지에 자생하는 대표적 수생식물로 생장기에는 영양염을 흡수해 조류 확산을 억제하는 등 수질관리에 기여하지만 가을철 대량 고사 시 분해 과정에서 용존산소가 소모되고 영양염이 재유입되어 수질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워터팜은 마름 열매에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확인하고 이를 화장품 원료로 업사이클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업 효과 도식.

수생식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저수지 환경 개선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뷰티 브랜드 누로아의 첫 제품인 누로아 앰플은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등 유해 성분은 배제하고 마름열매 추출물과 니아신아마이드 등 식물성 원료를 적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품은 공사 기념품 용도로 제작-활용될 예정이며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박소미 한국농어촌공사 워터팜 팀장은 "누로아는 '세상에 이로운 아리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며 "수생식물 자원을 활용해 농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